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말씀 : 베드로전서 2:4-10

요절 : 베드로전서 2:4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초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과 박해와 애매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피하여 정든 고향을 떠나 소아시아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받는 이들을 어떻게 권면합니까?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위로하면서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갈 때 얼마나 복된 존재로 빚어지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을 덧입게 되는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새롭게 발견하고,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시 한 번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4-8)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4) 이 서신을 받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버림 당한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그들에게 인간적인 위로와 힘을 주기보다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나아가갈 때만이 진정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슬픈 처지만 생각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자학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어려운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든 상황에 부딪히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 인간적인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세상 친구에게 나아갑니다. 대개 자신을 이해해주거나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에게 나아가 자기의 아픔과 억울함을 하소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거나 울분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친구나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 인간적인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스피릿이 충만한 목자님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맞장구 쳐줄 만한 비슷한 수준의 형제자매에게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 술, 이성 친구, 노래방 등을 찾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목자들은 옛 친구들을 거의 만나지 못해 오갈 데가 없어 스포츠나 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PC방에 나아가서 게임에 몰두하여 모든 것을 잊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줄을 알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 해결은커녕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고 영혼은 더욱 곤고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날에, 핍박의 날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패배감으로 힘들 때, 또 마음이 딱딱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울 때, 인간 갈등으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장래문제로 심령이 어두워질 때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양 문제, 물질 문제, 가정문제, 직장문제, 인간갈등 문제 등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예수

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영육 간에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4:15,16).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줍니다. 여기 ‘나아가’(헬라어, 프로세르크메노이)란 동사는 현재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분사형으로 한번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아가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 가운데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 하며 사랑과 희생으로 키운 제자들도부터도 배반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동족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버림을 받아 영문 밖에 쫓겨쳐져서 흉악범들이 달리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말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셨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가 필요 없다고 내버린 돌처럼 사람들도부터 철저히 버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이처럼 사람들도부터 철저히 버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사53:3-6). 그러나 이것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 받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도록 하시어 보배로운 산 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빌2:9-11).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시며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힘들고 슬픈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결국은 영광스러워진 예수님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의 처지가 배척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 영광에 참여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니, 이 영광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 이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산 돌(the living Stone)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산 돌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생명은 예수님에게서 나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생명의 주를 무덤에 가두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사망권세를 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의

지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샘이 되시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됩니다(요4:14).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에게 나아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하고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요6:35).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산 돌이 되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산 돌로서 인생의 반석이요 교회의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인생들의 유일한 기초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18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교황 같은 인간이나 신학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또한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의지하고 신뢰할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라고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받게 되는 영적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5)

① 산 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되어 신령한 집을 지어 나가게 됩니다.(5a) 예수님께 나아갈 때 '신령한 집'(spiritual house)으로 세워집니다. 신령한 집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과 죄인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집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주시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로 충만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집으로 세워집니까? 말씀과 기도의 영이 사라지고 세상으로부터 밀려들어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점령당하는 육신의 집으로 세워집니다. 그러한 집들 중에는 겉으로 보기에 참으로 대단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참으로 대단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집들 중에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진이 나면 무너질 집, 불이 나면 타버릴 집을 짓는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산 돌(The Living Stone)이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작은 산 돌(a living stone)이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聯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죽은 돌이요 쓸모없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연합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서 우리도 산 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만민 구속역사의 신령한 집을 지어나가는데 벽돌로 귀히 쓰임 받게 됩니다(엡 2:20). 구약시대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었고 그 건축 자재들은 죽은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 되시고 그 건축자재는 모두 살아있는 인격체들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기초석이 되시고 우리 믿는 성도는 그 위에 신령한 집, 곧 거대한 우주적 교회를 지어 나가는 살아 있는 벽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한 분 한 분이 신령한 집을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소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생명이 없을지라도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도 산 돌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

사한 일입니까? 구약시대에 성전(聖殿)하면 크고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성전의 개념(概念)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 다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신령한 집, 곧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호가 산돌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덧입기 위해 자신의 호를 산돌로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본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본래 성품이 성자여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재선)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일기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재선이와 앉아서 밥을 먹을 때면 모래를 씹는 것처럼 너무나 괴로웠다” 친 아들을 두 명이나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서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손 목사님의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직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용서의 사랑이 임하여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②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5b) 우리가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빚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이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 된 인간 사이의 중보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자신의 몸을 드려 하나님께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눅23:45). 히브리서 9: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이 새로운 살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히10:19,20)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님의 보배 피를 의지하여 신분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직접 제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이 되는 만인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③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6)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6) 하나님은 친히 택하신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셨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집을 건축할 때 벽과 벽 사이를 잇는 기준점이요 출발점이 되는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하여 집을 지어야 견고한 집이 세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집도 이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점이요 출발점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짓는 인생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로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모래처럼 부서지기 잘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인생의 모퉁이 돌이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지었을 때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7,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7,8)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보배(寶貝-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가 되십니다. 그 인생을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게 하시는 보배가 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불신하였고 필요 없다 생각하고 영문(營門) 밖에 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우리 인생의 건축에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으로 세우셔서 심판의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입니다.

작년 한때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진모 검사장은 학교 다닐 때 항상 1등만 했습니다. 사시, 행시다 합격하고, 연수원 성적도 1등, 하버드 로스쿨을 거쳐, 검사 승진도 제일 빨랐습니다. 탄탄한 인맥을 통해 온갖 정보를 수집해서 엄청난 부(富)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비리가 드러나서 큰 부끄러움을 당하였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한때 부러움의 대상에서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요사이의 사람들의 부러움과 출세의 상징으로 권력의 정점(頂點)에 서 있었던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등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빨리 진급하여 정상에 올라가는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여 화려한 삶을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학창 시절에 취직준비를 하고, 연애를 하고, 자기 낭만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 말씀 공부를 하고, 소감 쓰고, 양들을 섬기고, 목자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정말 누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는가가 분명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마7:24-27). 지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별 볼일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 승리의 면류관(冕旒冠)을 얻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남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밖에 없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그 사람만이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인생의 집을 지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II. 왕 같은 제사장(9-10)

사도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영적인 신분이 무엇인가를 4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ing to God)”(9a)

첫째로, 택하신 족속입니다.(a chosen people) ‘족속’(헬라이어 게노스, 族屬)은 ‘혈통 혹은 출생’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血統)을 이어받은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만 택함 받는다면 이방인들은 억울합니다.

세상에는 흠수저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운명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출생은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본인의 의지나 선택이 아니듯이 흠수저로 태어나지 말아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택한 족속이 된 것입니다. 요즘 같이 취직이 힘든 시대는 중견회사로부터 택함 받는 것도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9급 공무원에 합격하여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부자이시고 권세가 있으십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약5:11). 쇠하고 썩어 없어질 금수저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연 혈연 학연 능력 심지어는 관상을 보고 사람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택함을 받아도 언제 정리해고를 당할지 몰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 조건을 떠나 믿고 순종하는 자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택하신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신할 때 비교의식, 손해의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런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도망 다니는 나그네 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받은 족속(chosen people)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귀족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성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택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의 늙은이로 아무 소망도 없이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창12:3). 아브라함이 축복의 기준(基準)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16:18,19)” 갈릴리 촌 어부 베드로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 때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축복이 베드로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는 족속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세상에는 65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이방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방인이요, 외인들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죄 많고 쓸모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둘째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a royal priesthood)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불화관계에 있어 심판받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이런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 받도록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법도를 좇아 살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곧 제사, 기도, 교육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전파를 통해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요20:23). 또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딤후 2:1,2). 부지런히 말씀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요21:15).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느나 멸망에 처하게 하느나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고귀한 직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한다고 했습니다.(찬송가 508장)

그런데 베드로는 제사장 앞에 ‘왕 같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제사장이라도 보통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royal priesthood. 왕 같은 제사장은 원래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란 뜻인데 왕이신 하나님을 보좌하는 제사장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보좌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도 왕적인 신분을 갖습니다.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 할 수 있는 왕족이 되었습니다(딤후2:12).

우리 크리스천들은 왕도(kingship)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왕답게 생각하는 스케일이 크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 어떤 종류의 사람도 이해하고 품고 섬길 수 있는 깊은 이해심과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 받은 우리가 속이 뻔뻔이 속처럼 좁아서 한 사람도 품고 섬기지 못한다면 이는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왕의 내면은 어떤 종류의 사람도 이해하고 품고 섬길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만 섬긴다면 왕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내 양, 내 요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이 국내외의 정사와 민심을 챙기듯이 7부 센터 전체 역사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광주 전체역사, 세계 캠퍼스 양들을 마음에 품고 섬겨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자기에서 시작하여 양, 요회, 동역자, 선교사를 위해 중도기도 해야 합니다.

승정원(承政院) 일기(정조)에 의하면 왕은 오전 5시에 기상하여 밤 11시에 공식적인 업무가 끝나는데, 비공식적인 업무까지 처리하면 잠을 제대로 못잘 정도였다고 합니다. 왕의 업무는 무려 만 가지나 되어 24시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365일 중 휴일이 없던 왕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휴가는 삼정승이 사망했을 때나 대보름, 추석 등의 명절뿐이었습니다. 조선 22대 왕인 정조의 기록을 보면 왕의 고뇌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쁜 틈에 백성들에게 내릴 글을 짓느라 며칠째 밤을 새우고 닭 울음을 듣는구나. 괴롭다.” “책을 읽고 온갖 문서를 보느라 심혈이 모두 메달렸구나.” 백성을 마음에 품고,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왕은 일반 왕과 달리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본래 왕은 군림(君臨)하고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백성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며 대적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서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이런 목자의 마인드를 가진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좋은 분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0: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셋째로, 거룩한 나라입니다.(a holy nation) ‘거룩한’은 원래 ‘구별하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선별된 존재임을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세상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성결(聖潔)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세상 가치관과 유행을 따라 살지 않고 주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며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만, 신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세상에서 손해보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한심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느라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서서히 세상의 죄악의 타류(濁流)에 휘말려 죄의 노예가 되고,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귀히 쓰임 받는 영광스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a people belonging to God) ‘소유’란 ‘얻고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소유된’(헬라어 페리포이에신)의 의미는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된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배 피로 사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이나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 피로 값 주고 사셔서 그의 소중히 간직하시는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고전6:20, 7:23). 엄청난 값을 치러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싸게 산 물건은 함부로 다루지 않고 애지중지(愛之重之)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끈적이 아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시고, 우리 인생을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영광스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내가 나의 것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챙기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위험과 해로부터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그 장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죽음 이후에도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자의 영적 신분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4가지 영적인 신분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동시에 그것도 값없이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절대적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당장 열매가 없고,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절망하거나 회의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테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새끼’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오리가 다른 친구 오리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친구 오리들도 왕따를 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미운 오리새끼는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깨가 근질근질해서 날개를 펴고 날아보니

정말 몸이 뜨는 것입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미운 오리가 아니고 백조라는 사실을. 그 후 오리와는 차원이 다른 백조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 이 땅에서 힘써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9b)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흑암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골1:3). 그의 기이한 빛(his wonderful light)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과거 우리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좇아 살며 어두움의 종노릇하였습니다(벧전4:3). 우리는 과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살았고 거라사인과 같이 살았으며 세리와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공홀을 얻지 못한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크게 공홀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과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공홀을 얻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공홀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10).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공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는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역사입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루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즉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사랑과 용서를 알지 못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알지 못합니다. 허무와 두려움과 죄의식에 시달리면서도 사탄의 거짓 선전에 속아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 오해(誤解)와 편견(偏見)이 풀리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선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홍보실을 사장 직속에 두고 운영하며 10% 정도를 홍보비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상품을 사게 만들 수 있는가 많은 연구를 합니다. 우리는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과학이다’ 하면 에이스 침대를 생각하고, 휴대폰 하면 삼성 갤럭시, 라면 하면 옛날에는 삼양 라면이었는데 요사이에는 농심 신(辛)라면처럼 선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선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한 물건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힘써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때 생명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선전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선전할 수 있을까 새롭게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양들의 변화를 연구하고 새롭게 말씀을 연구하여 선전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항상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갈 때 생명과 힘과 위로를 얻고 우리도 산돌이 되어 예수님과 더불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가정과 캠퍼스에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 234개국 이방 캠퍼스에 나아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전부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캠퍼스 영혼들에게 적극적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2017년 7부 가운데 12형제, 12자매 제자양성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